

산체스 “싸움닭? 난 고요한 승부사”



산체스



“싸움닭이요? 내면은 고요한 친근한 사람입니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마리오 산체스가 ‘정교함’으로 팀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도니스 메디나의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산체스는 지난 9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산체스는 이날 키킹 동작과 견제 동작을 놓고 몇 차례 어필을 받기도 했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공을 던지면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구와 좋은 제구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10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2년 연속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으로 고민했던 KIA에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산체스는 “팀이 가족처럼 대해줘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마치 오래있었던 팀 같은 기분이다. 많은 팬을 보유한 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원정에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 부담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됐다”며 “스위퍼와 직구에 초점을 뒀서 피칭을 했다. 새 리그에 와서 시험해보는 개념은 아니고 타자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포수와 계획했던 것에 맞춰서 던졌다”고 첫 등판을 이야기했다.

팀이 가족처럼 대해줘 적응에 도움

이중키킹 오래 전부터 사용한 동작

사용 못한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강한 피칭보다 제구력 세밀하게 승부

첫 등판에서 산체스는 성적 외 몇 가지 이슈로 시선을 끌었다. 극단적으로 오른쪽 투구판 끝을 밟으면서 승부를 한 그는 이중키킹 동작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투구판 밟는 것은 작년부터 조정했다.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현재처럼 투구판을 밟는데 브레이킹 볼 시험하면서 좌타자 상대를 하기 위해 준비한 방법이다. 스위퍼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이 다 괜찮아진 것 같다”고 설명한 산체스는 “(심판진으로부터) 이중키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투구폼을 가져가야 한다고 들었다. 이중키킹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하고, 변화를 주면 위반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동작이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피칭 스타일이 바뀔지 모르겠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만리그에서 이어 KBO리그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야구는 같다”고 적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산체스는 “KBO리그 이야기 많이 듣고 정보도 확인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미국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타자들이 힘있게 치려는 모습이다. 야구가 나라마다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구는 비슷하다”며 “미국에서 던졌던 것과 한국 공이 비슷한 것 같다. 오히려 대만 공이 부드러워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없어서 적응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친근한 동료들과 팀이 산체스의 적응에 힘이 됐다.

산체스는 “KIA 최고의 강점은 선수들끼리 협력하고 가족처럼 끈끈한 것이다. 그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였지 않을까 싶다. 모든 선수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특별히 무엇을 하기 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싸움닭 스타일은 아닌데 경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내 플레이에 집중한다. 내면은 고요하고, 평온한 스타일이다. 경기 중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이게 비춰질 수 있는데 친근하고, 거리에서 만나면 편한 사람이다”며 “내 강점은 강한 피칭 보다는 좋은 제구로 승부하는 점이다. 구속 상승에 대한 바람은 있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구력 유지하면서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SG에 최근 입단한 이강인이 12일(한국시간) 동료들과 첫 팀 훈련에 참가했다. 이강인이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나란히 앉아 스트레칭하고 있다.

(PSG 영상 캡처)

PSG-음바페 ‘감정 싸움’ 벤치 대기·급여 중단 될수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최고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과 ‘핵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24)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024년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가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거부하자 PSG는 내년에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이적료 없이 음바페를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 ‘벤치 대기·급여 중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지난 11일(한국시간) “PSG가 음바페를 향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여름에 이적하지 않거나 재계약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벤치에 앉혀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음바페가 PSG에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포기하겠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음바페는 지난달 13일 BBC 등 외신과 인터뷰에서 “2023-2024시즌에는 PSG에 남겠지만 계약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PSG에 서면으로 연장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더불어 이번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합류한다는 기사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 PSG와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바페는 내년 여름 이적료 없는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음바페의 발언에 PSG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PSG는 지난 2017년 9월 AS모나코에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이적료 1억8000만 유로(약 2570억원)를 지불하고 영입했다. 당시 네이마르(PSG)의 이적료 2억2200만 유로에 이어 역대 2위의 금액이었다.

음바페는 PSG에서 임대 시간을 포함해 6시즌을 뛰는 동안 공식전 260경기를 뛰며 212골을 작성하며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활약했다.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음바페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PSG는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

이강인, 네이마르 등 스타들과 PSG 첫 훈련

PSG, 8월 3일 부산서 전북과 친선 경기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22)이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의 첫 훈련을 소화했다.

PSG는 1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군 선수단이 루이스 엔리케 신임 감독의 지휘 아래 첫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훈련 현장을 전하는 글과 영상 콘텐츠 모두가 선수단 전체보다는 이강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강인은 간단한 검사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실내 훈련을 했다. PSG와 브라질 대표팀의 ‘슈퍼스타’인 네이마르가 이강인과 나란히 앉아 스트레칭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스페인 출신으로 2018년부터 PSG에서 뛰어난 베테

광주FC-제주U ‘한 여름밤 혈투’ 0-0 무승부



광주FC와 제주유나이티드가 한 여름밤 혈투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가 11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제주와의 K리그 2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두 팀은 쉴 틈 없는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누구도 골문을 열지 못했다. 광주가 8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중 2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골대를 가리지 못했다. 제주도 12개의 슈팅을 광주 진영을 향해 날렸지만 유효슈팅 하나만 날렸다.

전반 막판 수비 핵심 티모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빠졌지만 광주는 부상 약재 속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봉수가 있던 공세로 광주를 괴롭혔다.

전반 27분 김봉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광주가 한숨 돌렸다. 3분 뒤 다시 한번 김봉수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골대 위로 공이 땀다.

제주의 초반 공세에 시달렸던 광주가 전반 34분 유효슈팅을 만들었다.

허울이 찌러준 공을 아사니가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이 골키퍼 김동준에 품에 안겼지만 이날 경기 광주의 첫 유효슈팅이 기록됐다. 38분에는 아사니가 원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이어진 제주 공격 때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김경민이 안장감 있는 수비로 공세를 막았다.

전반 41분 광주가 예상치 못한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티모가 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급히 아론이 그라운드에 투입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5분 제주의 역습 상황에서 김경민이 서진수의 슈팅을 막아냈다. 헤이스가 흐른 공을 잡아 왼쪽에 있던 김봉수에게 넘겨줬고, 재차 슈팅이 나왔지만 공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후반 11분 아사니가 상대 진영에서 코너킥 상황을 만든 뒤 직접 키커로 나섰다. 땅볼로 공을 보내면서 광주가 제주 공력에 나섰다.

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안영규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상대 맞고 공이 뒤로 흘렀다.

랑 풀백 후안 베르나트와 한동안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라운드에서 펼쳐진 첫 훈련에서는 공을 몰고 전력 질주하는 이강인을 향해 엔리케 감독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강인은 “PSG에 합류하게 돼 정말 기쁘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기대된다”고 훈련 첫 소감을 밝혔다.

PSG는 지난 9일 마요르카(스페인)에서 뛰던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28년까지다.

이강인은 오는 8월 3일 부산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PSG와 전북의 친선 경기를 통해 PSG의 짙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국내 팬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호 감독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후반 22분 조지아 국가대표 출신의 새 외국인 선수 베가를 투입했다. K리그에 첫 선을 보인 베가는 후반 31분 상대 수비진을 따돌리고 원발 슈팅까지 선보였다. 공이 골키퍼 김동준 품에 안기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후반 40분 제주 헤이스가 친정 광주 골대를 겨냥했다. 매서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빠지면서 광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두 팀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경기는 0-0으로 마무리됐다. 광주는 1-1으로 끝난 앞선 강원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강원에서 제주로 이어진 원정 강행군을 지휘한 이정호 감독은 “힘든 원정이었다. 선수들도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수가 나오더라도 우리만의 색깔을 시도했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다. 양 팀 다 아쉬웠을 것 같다. 많이 아쉽지만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보여준 노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며 “하고자 하는 약속된 플레이에서 잔실수가 많이 나왔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계속 도전적으로 용기 있게 우리 축구를 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또 “제주가 쉽기도 하고 격정했는데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새 외국인 선수 베가를 언급한 이정호 감독은 “아사니, 이희균, 토마스 등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